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 교재 분석 및 학습자의 한국 문화 인지도와 요구 조사를 중심으로

기시 카나코 (와세다대학교)
(kishi-k@aoni.waseda.jp)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 대학교 한국어 수업에서의 한국문화 교육 항목을 선정하여 한국문화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포함된 문화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교재는 주로 일본 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합교재 총 15권이며, 이 교재들에서 수집된 문화항목을 국내에서 개발된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의 문화 항목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등급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문화에 대한 언급이 많았으며 반대로 기본적인 초급 문화 항목인데도 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도 있었다.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수강 중인 학습자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많은 초급 교재에 제시된 문화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요구 분석 결과 일본인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문화 항목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본고를 통해 밝힌 연구 결과는 향후 일본 대학교에서의 한국문화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문화항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주제어 : 한국 문화교육, 일본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교재 분석, 요구조사

I. 서론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 대학의 한국어 수강생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2012년 무렵부터 한일관계 악화에 따라 양국 간 마찰에 대한 언론 보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 드라마 및 가수의 방송 노출도 급감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타격을 입었고 일본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가 줄어 개설 과목수도 감소하였다.¹⁾ 최근 들어 점차 이러한 분위기가 진정되면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도쿄에 위치한 와세다 대학교의 최근 몇 년간의 수강 현황을 보면, 한국어 수강 동기 및 목표가 제1차 한류 열풍²⁾ 시기와는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1차 한류 열풍 시기는 한국 영화 및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며 이러한 방송 매체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학생이 많았다. 그러나 2012년부터 한일 간 마찰로 한국 방송의 미디어 노출이 감소하면서 한국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인, 특히 젊은 층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인터넷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발달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 등을 시청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SNS의 발달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이 교류에도 그 벽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한국어 학습자들 중에 한국인 친구가 있다는 것을 학습 동기로 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SNS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한국 문화를 알고 한국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언어를 학습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실 상황에서는 학습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만한 다양한 문화의 체계적

1) 하세가와(2015)는 일본의 대학은 2012년쯤 한국어 학습자 수가 최대를 기록하고 2013년 이후 한일 간의 외교관계의 영향으로 학습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오기노신사쿠 2015b, 66)

2) 오기노신사쿠(2015a)에서는 2004년~2005년의 한국 드라마 열풍을 제1차 한류라고 하고 2009년~2012년의 K-POP 열풍을 제2차 한류라고 하였다.

인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일본 대학교에서는 90분 수업을 주2회, 한 학기에 15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며 교재도 1년, 즉 30주(90시간)의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간 내에 각 등급 학습 내용을 마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보통 한국의 대학교 부속 어학교육원에서는 1~6급의 등급이 개설되어 있으며 한 학기 200시간을 두 학기(1급, 2급), 총 400시간을 이수하면 초급이 끝나게 된다. 이와 비교하였을 때 일본 대학교에서는 매우 짧은 학습 시간 안에 교육 내용을 마쳐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한된 수업 시간으로 인해 교재 외의 특별한 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고 현재로서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한국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문화 특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 대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문화 항목을 한정된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를 하고 그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일본 대학교에서의 한국 문화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급 교재 분석 및 학습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³⁾를 밝혀보고자 한다. 일본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 및 강좌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초급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문화 항목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1년에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의 한국 문화 범주를 기준으로 일본 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초급 교재를 분석하여 그 문화 항목을 조사하였다. 그 다음 교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 인지도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일본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재 분석과 인지도 및 요구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본 대학 한국어 강좌에서 어떠한 한국 문화 항목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지 검토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일본인 학습자 기본 정보

2.1.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

1970년대에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대두되면서 이 시기 이후 외국어 교육에서

3) 강현화(2011)에서는 문화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언어 능력이 문법적 능력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언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달라지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언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 교육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김정숙 1997, 318-319). Brown은 언어와 문화는 복잡하고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언어를 성공적으로 학습할 때마다 목표 언어의 문화에 대한 학습도 더불어 하게 될 것이며, 언어를 교수할 때마다 문화적 관습, 가치관, 사고방식, 감정, 행동양식 등을 교수하게 된다고 하였다.⁴⁾ 이렇게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교육은 외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화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어 왔다. 박영순(1989)에서는 문화교육은 학습자의 언어 교육에 대한 강한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켜줄 것이며, 문화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순수 언어적으로만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함으로써 한국 사람과의 교류, 한국 여행이나 유학을 가게 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생활이 수월해질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어 학습 경험을 살려 학문목적으로 더 깊이 공부를 하거나 한국어를 사용하여 취업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강현화 외(2011)에서도 제2 언어 학습자가 문화적 충돌이나 오해가 없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문화교육은 언어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영순(1989)에서 문화교육은 언어학습자에게 있어서 언어능력 신장의 필수조건이고 진정한 의미의 언어통달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언어와 문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김정숙(1997)에서는 언어와 문화는 통합해 교육할 수밖에 없는데, 문화적 숙달도(cultural proficiency)가 높아야 학습자가 목표어를 사용해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강승혜 외(2010)에서도 한 사회나 집단에서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언어와 문화의 관계가 강조되면서 최근에 한국교육계에서도 문화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⁵⁾

조향록(2015)에서는 1989년에서 2015년까지의 문화교육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세부 분야별로 살펴볼 때는 문화 교육방법, 문화 교육 총론 및 기초연구,

4) Brown, H.(1994), Principles of Language and Teaching(3rd ed.). 김경숙(2010)에서 재인용.

5) 조향록(2005)에서도 최근 한국어 교육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문화 교육에 대한 강조라고 하였다. 또한 조향록(2015)에서도 최근에 들어 이 분야의 연구가 양적으로 많아져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학과 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문화 교육과정이나 문화 교육자료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문화교육 대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내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외 연구는 세종학당에서 실시되는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다루는 연구가 많아 일본 대학교에서의 한국 문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오기노신사쿠(2015a)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는데 그 중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는 9편에 그쳤으며 그 내용도 소설, 시조 등 전통문화를 교육하거나 노래, 만화 등의 대중문화를 활용한 문화 교육 등 특정 방법과 내용에 한정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 실태 조사나 문화 교육 항목 선정 등 한국 문화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다.

2.2. 문화 범주 분류

언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문화를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문화를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광범위한 문화 중에서 어떤 항목을 어떤 순서로 교육할 것인가에 따라 그 의의와 효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이 문화를 범주화 하여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많은 연구들⁶⁾에서 인용된 Hammerly(1986)의 범주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Hammerly(1986)에서는 제2언어 교수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화 교육의 내용을 정보 문화, 행동 문화, 성취 문화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정보 문화(information of factual culture)는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원어민이 그가 속한 사회의 지리, 역사, 인물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나 사실과 관련된 문화’를 가리키고, 행동 문화(behavioral culture)는 ‘일상생활의 총합에 관련된 것’이며 성취 문화(achievement of accomplishment)는 ‘편지, 미술, 음악 등 한 사회의 예술적, 문화적 업적’이라고 보았다(강현화 2011, 11, 재인용).

2011년에 개발된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에서도 그 문화 영역은 Hammerly(1986)를 참고하여 범주화하였다.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⁷⁾은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국내외에서 통용 가능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없어 교육기관마다 형식적·내용적 측면에서

6) 강현화(2011), 김중섭 외(2011), 권성미(2013) 등에서 Hammerly(1986)의 문화 범주를 인용하였다.

7) 이하 ‘국제통용한국어표준모형’을 ‘표준모형’으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모형은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요목, 평가, 교재 등 개발을 위한 공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모형이다.

상이한 방식으로 교육해 온 것을 문제점으로 삼아 출발한 연구다.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필수적인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각 등급별로 내용, 범주(주제, 언어기술, 언어지식, 문화)를 구체화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가운데 문화 영역은 Hammerly(1986)에 따라 하위 요소를 성취 문화, 행동 문화, 정보 문화로 구분하여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등급화하고 있다.⁸⁾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Hammerly(1986)의 문화 항목 범주에 따라 표준모형의 초급에 해당되는 1,2급의 문화 항목을 중심으로 다음 장에서 교재분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3.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기본 정보

앞서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실제 일본의 한국어 학습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 한국어를 학습하는 대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와세다 대학교에서 현재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급 및 중급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학기에 걸쳐 한국어수업을 이수한 학생 총 77명을 대상으로 매학기 개강 첫 강의 시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은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먼저 학습 동기를 살펴보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한국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관심으로 수강신청을 한 학습자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타니자키미쓰코(2012)에서도 도출된 바 있으며 학습자들의 문화 학습에 대한 높은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⁹⁾ 그 다음은 ‘한국인 친구가 있어서’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수강생 중 약 43% 학생이 한국인 친구가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러한 점이 한류 열풍이 시작했을 무렵의 학습자와는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거에는 드라마 등을 계기로 언어를 학습하기 시작하였던 것에 비해 이제는 한국인과 직접 교류하고 친구가 됨으로써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8) 표준모형에서는 한국 문화 교육 항목을 각 등급별로 세부 기술하였다. 그 중 초급인 1,2급 항목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9) 타니자키미쓰코(2012)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초급 학습자 총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46.7%의 학습자가 한국어와 한국 미디어 매체 등 문화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흥미를 학습동기로 선택하였다.

〈표 1〉 와세다대학교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학습 동기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48명
	한국인 친구가 있어서	33명
	다른 언어보다 쉬워 보여서	23명
	아시아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19명
	한국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7명
	자신이 한국과 관련이 있어서	4명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3명
	북한 및 남북 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3명

다음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부 분야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 요리는 제1차 한류열풍 시기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분야다. 최근에는 일본 곳곳에 한국 식당이 생겼고 일본인들도 한국 음식을 즐겨 먹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드라마, 영화보다 K-POP에 대한 인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방송에 한국 가수가 출연하여 노래하는 기회는 많지 않지만 K-POP은 특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여전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와세다 대학교에서도 2012년에 K-POP 댄스 동아리가 생겨 외부 행사나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표 2〉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심을 갖는 한국 문화의 세부 분야

관심 분야	요리	53명
	K-POP	52명
	드라마, 영화	47명
	역사	14명
	정치	13명
	스포츠	4명
	전통 문화	3명

다음은 한국어 강좌 수강 후 희망하는 것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여기서도 역시 한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어학연수 및 유학을 희망하는 학습자도 다소 있으며 한국어를 활용해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습자도 있었다. 그러나 학문목적으로 공부하고 대학원 진학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없었다.

〈표 3〉 한국어 강좌 수강 후 희망하는 것

수강 후 희망	한국인 친구 만들기	25명
	한국 여행	19명
	단기 어학연수	14명
	한국 유학	8명
	취업	7명
	봉사활동	3명
	대학원 진학	0명
	기타 (노래나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5명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인 친구와 만날 기회가 많은 학습자들은 한국인 친구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학문 목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Ⅲ. 교재 문화 항목 분석

3.1.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교재는 최근 10년 이내에 출판된 통합 교재로, 일본 대학교에서 초급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교재 총 15권이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두 일본에서 출판된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이며 모두 일어로 쓰인 교재다.

〈표 4〉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교재

	저자	교재	출판사	출판년
①	曹美庚·李希姪	『キャンパス韓国語』	白帝社	2007
②	イユニ·水谷清佳	『よく使うことばで学ぶ韓国語』	朝日出版社	2010
③	生越直樹·曹喜澈	『ことばの架け橋 改訂版』	白帝社	2011
④	長谷川由起子	『コミュニケーション韓国語 聞いて話そう!』	白帝社	2012

	저자	교재	출판사	출판년
⑤	徐珉廷·吉本一	『話そう韓国語』	同學社	2012
⑥	村上祥子·室屋正史	『しっかり韓国語』	同學社	2012
⑦	李昌圭	『韓国語へ旅しよう 初級』	朝日出版社	2012
⑧	宋美玲·印省熙·白寅英	『踏みだそう！韓国語への第一歩』	白帝社	2013
⑨	金順玉·阪堂千津子	『最新チャレンジ韓国語』	白水社	2014
⑩	入佐信宏·金孝珍	『これで話せる韓国語STEP 1』	白帝社	2015
⑪	金智賢	『教養韓国語 初級』	朝日出版社	2015
⑫	岡村雄太·沈智炫· 佐々木正徳·梁正善	『完全！韓国語初級Ⅰ』	同學社	2015
⑬	李美賢·李貞旻	『楽しく學べる韓国語』	白水社	2016
⑭	黃聖媛·黃晁媛	『話せる！初級韓国語』	朝日出版社	2016
⑮	北原スマ子·金孝珍	『即！實踐 楽しもう韓国語』	白帝社	2017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준모형의 문화 항목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 교재의 대화텍스트 및 어휘, 연습문제, 문화 칼럼에서 문화 요소들을 수집하였다. 표준모형에서는 문화 교육 항목을 추출할 때 교재들의 독립 문화 항목, 읽기, 어휘 부분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권성미(2013)에서는 표준모형의 문화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교육 항목과 교재 대화텍스트에 포함된 문화 항목의 목록은 일치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대화텍스트의 문화 항목은 표준모형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독립 문화 항목, 읽기, 어휘와 함께 대화텍스트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교재 분석 결과 수집된 문화 항목들은 Hammerly(1982)의 성취 문화, 행동 문화, 정보 문화 세 범주를 기준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3.2. 문화 교육 항목 교재 분석 결과

교재분석 대상 교재의 대화텍스트, 어휘, 연습문제, 문화 칼럼에서 수집한 문화 항목들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준모형에서는 각 문화 항목에 맞는 등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분류 부분에 그것이 어떠한 등급에 분류된 것인지 () 안에 숫자로 제시하였다. 즉, (1)은 1급에 해당되는 문화 항목, (2)은 2급에 해당되는 문화항목이다. 또한 예시에 분류한 각 항목에는 위에서 분석 대상 교재의 번호를 제시하였다.

〈표 5〉 분석 대상 교재에 포함된 문화 항목

유형	교수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	전통/현대 공연(3)	탈춤⑩, 부채춤⑩	
			전통/현대음악(6)	등요(산토끼)⑦	
		문학	문학작품(6)	소설 “인연” ③ 토끼와 거북의 경주 ⑧ 고전소설(심청전)⑩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문화재(2)	유적지(경복궁①③④⑬, 송례문②, 동대문②)	
			무형문화재(2)	한복⑩⑪	
			무형문화재(3)	전통혼례⑩, 농악⑩	
			세계문화유산(2)	종묘⑫, 창덕궁⑫, 덕수궁⑥, 불국사③⑫, 석굴암⑫, 양동마을⑫, 해인사⑫,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⑫, 수원 화성⑫, 고인돌⑫, 하회마을⑫	
	한국의 역사	역사적 인물	유명인물(5)	이순신⑥	
	행위	한국인의 생활	언어생활	인사(1)	미안합니다 사용 상황②③ 고개 숙이고 인사하기/약수하기③④⑬, 빈말표현(밥 먹었어요?)②⑤⑩
				이름과 호칭(1)	친족호칭(할아버지, 할머니, 아빠/아버지, 엄마/어머니, 형, 오빠, 누나, 언니, 남동생, 여동생,)②③⑤⑥⑦⑧⑩⑪⑫⑬⑭⑮, 사회적 호칭(oo씨)③④⑧⑩⑮ ~님,~손님,~고객님⑮, 선후배 호칭(선배,~야/아)④
이름과 호칭(2)				한국의 흔한 성씨③⑤⑦⑧⑩⑬ 호칭의 확대현상④⑩⑬⑮	
이름과 호칭(3)				친족호칭(친가와 외가의 가족호칭)⑦⑩⑪⑫	
한글과 한국어(2)				언어예절(존댓말)②③⑧⑩⑬	
한글과 한국어(4)				PC한글 입력 방법⑦⑪⑫⑬, 통신언어·줄임말⑥	
한글과 한국어(5)				속담③⑬	

유 형	교수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정 보			몸짓 언어(2)	비언어적 행위(자신을 가리킬 때 가슴을 가리킴)⑩
		일상생활	식생활(2)	특별한 날 먹는 음식(생일-미역국)⑪⑬⑭⑮, (설날·아이 백일·이사-떡)⑩ 식사예절(그릇 들지 않고 먹기①③⑮, 어른 먼저 수저 들기②⑤⑩, 먼저 자리 뜨지 않기⑤, 식사할 때 소리 내지 않고 먹기⑮, 자기 수저로 직접 요리 먹기 ¹⁰⁾ ⑮, 식사할 때 앉는 방법⑮, 상에서 수저 위치와 방향⑮) 삼겹살 먹는 방법(싸서 먹기)⑩, 뽕밥은 비벼서 먹기③ 음주예절(고개 돌리고 마시기②⑩⑮), 첨잔을 하지 않기⑮)
		공동체 생활	학교생활(3)	동아리④, 미팅⑤, 소개팅①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건강(3)	웰빙 현상 ②
	한국 사회	교통	교통수단(1)	지하철⑫⑬, 열차⑫, 기차⑫⑬, 코레일⑫, 버스⑫⑬, 택시⑫⑬, KTX②⑦⑪⑮, 경부선⑦, 경의선⑦
			교통수단(2)	지하철 이용법 ⑥
한국인의 생활	일상생활	주생활(2)	아파트 선호⑩, 전세제도⑩ 온돌⑥⑩	
		식생활(1)	한국사람이 자주 먹는 음식 (비빔밥①③④⑥ ⑧⑨⑩⑪⑫⑬⑭⑮, 냉면①③⑦⑨⑩⑫⑬⑭, 김밥②③⑤⑨⑩⑬⑮, 떡볶이②⑨⑩⑫⑬⑭⑮, 불고기⑦⑨⑬⑭⑮, 김치찌개①③⑦⑬⑭, 김치③⑨⑩⑮, 삼계탕③⑨⑩⑬, 잡채⑨⑩⑬⑮, 한정식③⑩⑪, 파전⑩⑬⑮, 자장면,짜장면③⑤⑬, 미역국⑨⑬⑭, 팔빙수⑥⑨⑫, 칼국수⑩⑬, 부대찌개⑩⑬, 순두부찌개⑨⑬, 된장찌개①⑫, 두부김치⑤⑩, 순대⑥⑬, 낙지볶음⑤⑩, 곰탕⑤⑬, 찜닭⑤⑫, 육개장⑫⑮, 닭갈비⑧⑨, 설렁탕③, 쫄면⑩, 김치전⑩, 제육볶음⑩,	

유 형	교수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한국사회				계란말이⑩, 감자탕⑨, 삼겹살⑨, 번데기⑬, 볶음밥⑬, 된장국⑬, 북어국⑬, 갈비탕⑬, 떡국⑬, 갈비①, 족발⑮, 갈비찜⑤, 갈치조림⑤, 붕어빵⑥, 오뎅⑫, 돼지국밥⑫, 막걸리③⑥⑨⑩, 소주⑨⑩,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기③⑥⑩	
			식생활(2)	계절음식(삼계탕-복날⑩⑮, 팔방수- 여름⑥)	
			경제활동(2)	백화점⑥, 대형마트(이마트)⑥, 면세점④, 재래시장(동대문시장⑥, 남대문시장④⑥⑪)	
		언어생활	한글과 한국어(1)	한글 창제 원리②③⑤⑥⑧⑩⑪⑭⑮	
			이름화 호칭(1)	한국 사람의 이름 구성③	
		여가생활	친목 모임/동호회(3)	등산⑬	
			친목 모임/동호회(4)	PC방⑬	
		한국사회	경제	경제제도(1)	화폐의 종류⑤
			지리	한국의 지리/지형(1)	한반도 지도③④⑤⑥⑦⑧⑪⑫⑬ 사계절과 날씨③
	대표지역과 축제(3)			서울지명(명동①④⑪, 인사동①⑩, 남산④, 강남⑪, 청계천⑪) 대표지역 소개(부산①⑧⑩⑪, 제주도①⑦⑧⑩⑪⑫, 경주①⑪⑫, 안동①⑪⑫⑮, 서울⑧⑩, 전주①⑪, 춘천⑧⑪, 강화도⑪⑫, 이천①, 강릉⑪, 용인⑪, 천안⑪, 부여⑪, 진도⑪, 순천⑪, 여수⑪, 대구⑪, 수원⑫) 행정구역(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도, 8도)⑩	
	교육			교육제도(2)	학기 시작 시기⑩ 6-3-3-4 학제④⑥⑦
			교육제도(4)	대학 입학시험⑩	
			교육열(5)	조기교육(기러기야빠)⑩	
	교통		교통체계(2)	버스 종류⑫⑬, 택시 종류⑬ 지하철노선⑦⑪	
	관혼상제		관례/혼례(2)	백일⑦⑩ 결혼식·결혼문화(폐백)⑥⑦⑪⑮	

유 형	교수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장례/제례(2)	장례식⑦
		세시풍속	명절(2)	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국, 세뱃돈, 차례, 윷놀이)①⑩ 추석⑩
		사회	공휴일(3)	공휴일②④⑤⑦⑧⑩⑪⑬⑮, 어버이날④⑧⑨⑮, 스승의 날④⑧⑨⑮, 제헌절④⑦⑧⑮, 식목일④⑧⑮, 국군의 날④⑧⑮, 블랙데이⑨⑬, 빼빼로데이⑨, 성년의 날⑮
	한국인의 가치관	사고방식	민간신앙(4)	띠④⑤⑧⑨⑪⑬⑮, 사주·궁합⑥, 해몽⑬
			종교(6)	주요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각 종교의 신도분포⑦
			빨리빨리 행동(3)	경제발전의 원동력·인터넷 속도⑪
		가치관	성역할(6)	남성의 군복무의 의무⑥⑦⑮
			가족주의(6)	‘우리’의 사용(우리나라, 우리집)②⑬
	한국의 문화유산	상징물	한국의 상징(4)	국기⑦⑩⑪, 무궁화⑦⑪⑬, 국가(애국가)⑦⑪, 까치⑪, 장독대⑪, 설악산⑪

이와 같이 분류된 문화 항목들은 표준모형의 그것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성취 문화, 행동 문화, 정보 문화 세 범주마다 각각 정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분석한 교재가 초급 교재임을 고려하여 표준모형 문화 항목도 1,2급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¹¹⁾

3.2.1. 성취 문화

성취 문화에 관해서는 표준모형에는 1급에 해당되는 항목은 없었기 때문에 2급 이상에 나타난 항목과 일본 교재에서 수집된 항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준모형을 보면 다른 범주와 비교하였을 때 다루어진 성취 문화 항목은 많지가 않으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세 분야만 초급에 해당된다. 분석 대상 교재에서 보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표준모형의 초급 기준보다 오히려 높은 등급의 항목들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준모형에서는 3급에 해당되는 탈춤, 부채춤, 전통혼례와 농악, 5급에

10) 일본에서는 냄비요리 등 한 그릇에 담겨 나온 요리를 다 같이 먹을 때 요리를 별도의 국자 등을 사용해서 덜어 먹고 자기의 수저, 젓가락을 사용해서 직접 먹지 않는다.

11) 부록1에 제시된 표준모형 1, 2급 문화 항목 참조.

해당되는 이순신과 같은 유명인물, 6급에 해당되는 고전소설, 전래동화와 동요 등이 일본 초급 교재에 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재⑧에서는 아동문학작품으로 『토끼와 거북의 경주』가 실려 있는데 이 작품은 일본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동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접근하기가 쉬운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어휘를 보면 초급에서 다루기에는 수준이 매우 높아 일어 번역을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표준모형에서는 2급 성취 문화 교육 내용 예시로 제시한 강강술래는 수집되지 않았다. 이러한 비교 결과를 보면 일본교재는 성취 문화에 있어서는 등급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초급 수준보다 높은 등급의 항목들도 비교적 많이 교재에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3.2.2. 행동 문화

표준모형에서는 제시하고 있지만 교재에 다루지 않았던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1급에 해당되는 상차림은 교재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 음식에 관해서는 많은 내용이 다루어졌으나 상차림에 대해 언급한 교재는 없었다. 2급에 해당되는 몸짓 언어에 관해서는 표준모형에서 그 예시로 ‘답답할 때 가슴을 치는 동작’이 소개되었으나 이 동작은 일본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답답함을 걸음으로 표출하는 대표적인 몸짓언어가 없으므로 교육시키기가 어려운 몸짓언어일 수도 있겠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자신임을 나타낼 때 코를 가리키느냐, 가슴을 가리키느냐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몸짓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한 교재가 하나 있었다. 음주 예절과 관련하여 고개 돌리고 마시기는 세 교재에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음주예절에 관해서는 언급한 교재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에서는 술과 관련된 문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필요할 것이다.¹²⁾ 계절에 따른 날씨, 벚꽃놀이, 단풍놀이를 한다는 것도 교재에 나타나지 않은 표준모형 항목이다. 이는 일본에 거의 동일한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문화로 소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통에 관해서는 버스 타는 곳, 버스 이용 시 요금 지불 방법과 할인, 노약자석에 앉지 않기,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등 많은 내용이 교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이 앉는 경우도 많고 노약자가 탔다고 해서 꼭 양보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문화는 적극적으로 교재에서 소개하며 한국 방문 시 적절한 교통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통수단으로는 표준모형은 주로 버스

12)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술잔에 술이 많이 없으면 다 마시기 전에 술을 다시 가득 따라주는 습관이 있다.

이용하기를 설정하였는데 일본 교재에서는 이는 다루어지지 않고 지하철 이용만이 많이 소개되었다.

다음은 일본 교재에서 소개되었지만 표준모형에서는 3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표준모형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다. 표준모형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인사와 관련하여 ‘미안합니다’의 사용 상황에 대해 언급한 교재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고마운 마음을 표시할 때 습관적으로 ‘미안합니다’에 해당되는 “すみません”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과 외의 상황에서 이 말이 사용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인 특유의 화행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표준모형에서는 3급에서 제시된 친가와 외가의 가족 호칭에 대해서 언급한 교재도 4권 있었다. 일본에서는 호칭으로 친가 외가를 구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타 가족호칭을 소개하면서 상이 하는 친가 외가 호칭을 소개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언어 예절과 관련해서는 존댓말에 관한 언급이 많았다.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뚜렷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하여 가족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 또한 회사 상황에서는 외부 사람에게 사내 사람을 높여 말해서는 안 되는데¹³⁾, 이와 같은 존댓말 사용 상황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 교재가 많았다.

한글과 한국어에 관한 항목들은 비교적 많이 소개되었으며 4급에 해당되는 통신 언어, 줄임말, 5급에 해당되는 속담을 소개한 교재도 있었다. 특히 속담은 교재③에서는 한일 간에서 비슷한 속담을 중심으로 무려 총 22개가 각 과마다 소개되었다. 표준모형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컴퓨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교재가 4권 있었다. 이는 인터넷 검색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초급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3급에 해당되는 학교생활에 관하여 동아리, 소개팅도 소개되었다. 일본은 거의 모든 대학생이 하나 내지 두 개 이상의 동아리에 소속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대학생이 대상인 만큼 학교생활에 관한 주제는 친근한 항목이다. 또한 역시 3급에 해당되는 웰빙 현상에 대해서도 초급에서 소개한 교재가 하나 있었다.

식생활은 한국과 일본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그만큼 일본 교재에서도 표준모형에서는 설정하지 않았던 여러 식습관에 관한 항목이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찌개나 탕과 같은 음식도 먹기 전에 각각 앞 접시에 나눠서 담아 각자 받은 음식만 먹는 것이 보통이며 직접 자신의 수저를 요리에 대지 않는다. 또한 한국과 정반대로 그릇은 들고 먹는 것이 일본 식사예절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한국 사람과

13) 예를 들면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에게는 “지금 사장은 자리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올바른 경어 사용법이다.

식사할 때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교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한 문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재 분석 결과, 이러한 식사 예절을 다룬 교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2.3. 정보 문화

일본 교재에서 소개된 항목은 정보 문화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 우선 일본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표준모형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다. 표준모형 1급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일하게 식생활과 관련된 항목인 식기의 종류(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등)가 교재에 나타나지 않았다. 2급에 해당하는 항목에서는 한국의 주거 형태 중 한옥, 단독주택, 원룸, 기숙사, 하숙/자취, 좌식생활이 교재에 제시되지 않았다. 원룸이나 기숙사, 하숙, 자취와 같은 항목은 유학을 할 경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목인데 이를 다룬 교재는 없었다. 또한 경제 활동 중 야시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 가정생활 중 공공기관 이용과 경조사(돌, 환갑)에 관해서도 다루지 않았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유학생과는 달리 일본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대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용이나 인터넷 쇼핑 같은 것은 접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 제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교육제도와 관련해서는 정규교육과정의 진학 나이, 의무교육제도, 교통체계에서는 버스 전용차선, 환승, 교통카드, 관혼상제에서 성인식, 결혼정보 회사, 제사 지내는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환승이나 교통카드는 여행자들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초급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역으로 표준모형에는 3급 이상에서 제시하거나 아예 제시되지 않은 항목 중 일본교재에서 다룬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표준모형에서는 한국 사람이 자주 먹는 음식(밥, 김치, 찌개류, 국류 등)으로 간단하게 제시하였으나 일본 교재에서는 한국 음식 이름이 구체적으로 많이 소개되었다. 비빔밥은 12권의 교재에서 제시하였고 냉면도 8권, 김밥은 7권, 떡볶이도 7권에 교재에서 다루어져 있다. 계절음식에서 나온 삼계탕과 팔방수를 포함하면 총 50 종류의 한국음식이 교재에서 소개되어 한국 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큰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지명과 공휴일 역시 주목할 만하다. 표준모형 3급에서 제시한 대표지역과 공휴일이 많은 초급 교재에서 소개되었다. 특히 공휴일에 관해서는 공휴일뿐만 아니라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 제헌절, 식목일, 국군의 날, 블랙데이와 빼빼로데이 등 다양한 기념일을 다루는 교재가 많았다. 또한 결혼문화에 관해서는 표준모형에서는 상견례, 결혼 준비, 축의금 등이 제시되었으나 일본 교재에서는 주로 일본과 차이를 보이는 결혼 문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교재⑮에서는 일본에서는 참석 손님에게 초대장을 보내어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결혼식 당일엔 지정석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초대를 받아 출석 예약을 한 사람만 결혼식에 참가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손님에게 지정석을 준비할 일은 없다 등 한일 간에 다른 점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3급과 4급에 해당하는 친목 모임으로 등산, PC방도 교재에 제시되었고, 4급에 해당하는 대학 입학시험과 5급에 해당하는 조기교육 및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도 제시한 교재가 있었다. 특히 대학 입학시험은 대학생들에게는 친근한 소재이며 시간에 늦은 학생을 경찰관이 데려다 준다는 이야기 등 일본에서는 생각지 못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정보 문화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급에도 높은 등급에 문화 항목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급에 해당하는 띠, 사주·궁합, 해몽, 국기, 국가, 6급에 해당하는 종교와 남성의 군복무의 의무, 우리나라, 우리 집과 같은 ‘우리’의 사용 등이 교재에 제시되었다. 특히 띠에 관해서는 많은 교재에서 다루었으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도 한국과 동일한 띠 개념이 있으며 모든 동물들이 거의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으나 돼지띠만 일본에서는 멧돼지띠로 지정되어 있다. 띠라는 개념은 일본인에 친근한 개념이기 때문에 초급 단계부터 다루어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3.2.4. 문화 항목 출현 빈도

다음은 교재 분석 결과 추출된 문화 항목을 등장 횟수별로 정리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표준모형에서 1급에 해당하는 친족호칭, 한국 사람이 자주 먹는 음식, 한글 창제 원리 등 초급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문화 항목이 역시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표준모형에서는 초급이 아닌 3급에 해당하는 공휴일과 관련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제헌절’과 같은 항목이 일본 초급 교재에 많이 출현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모형에서는 4급에 해당한 민간신앙 중 ‘띠’도 7번이나 출현되어 일본 교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표준모형에서 1급, 2급에 해당하는 항목 중에도 몸짓 언어, 교통수단, 주생활, 경제활동, 장례/제례, 명절과 관련된 항목들은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교재의 문화 항목 출현 빈도

횟수	문화항목
12번	친족호칭, 비빔밥
9번	한글 창제 원리, 한반도 지도
8번	냉면, 공휴일
7번	김밥, 떡볶이, 띠

횟수	문화항목
6번	한국의 흔한 성씨, 제주도
5번	사회적 호칭, 언어예절(존댓말), 불고기, 김치찌개
4번	경복궁, 호칭의 확대현상, 친가와 외가의 가족호칭, PC한글 입력 방법, 생일에 미역국 먹기, KTX, 김치, 삼계탕, 잡채, 막걸리, 부산, 안동, 결혼식/결혼문화, 어버이날, 스승의 날, 제헌절
3번	고개 숙이고 인사하기/약수하기, 빈말표현, 그릇 들지 않고 먹기, 어른 먼저 수저 들기, 고개 돌리고 마시기, 한정식, 파전, 자장면, 미역국, 팔빙수,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기, 남대문시장, 명동, 경주, 6-3-3-4 학제, 식목일, 국군의 날, 남성의 군복무의 의무, 국기, 무궁화
2번	한복, 불국사, '미안합니다' 사용 상황, 숙담, 지하철, 기차, 버스, 택시, 온돌, 칼국수, 부대찌개,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두부김치, 순대, 낙지볶음, 곰탕, 찜닭, 육개장, 닭갈비, 소주, 복날, 인사동, 서울, 전주, 춘천, 강화도, 버스 종류, 지하철노선, 백일 설, 블랙데이, 국가(애국가), '우리'의 사용
1번	탈춤, 부채춤, 동요, 소설 "인연", 산토끼, 심청전, 송례문, 동대문, 전통혼례, 농악, 종묘, 창덕궁, 덕수궁, 석굴암, 양동마을, 해인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수원 화성, 고인돌, 하회마을, 이순신, ~님/~손님/~고객님, 선후배 호칭, 통신언어/줄임말, 비언어적 행위, 설날/백일에 떡, 먼저 자리 뜨지 않기, 식사할 때 소리 내지 않고 먹기, 자기 수저로 직접 요리 먹기, 식사할 때 앉는 방법, 상에서 수저 위치와 방향, 삼겹살 먹는 방법, 덮밥은 비벼서 먹기, 침잔을 하지 않기, 동아리, 미팅, 소개팅, 웰빙 현상, 열차, 코레일, 경부선, 경의선, 지하철 이용법, 아파트 선호, 전세제도, 설렁탕, 쫄면, 김치전, 제육볶음, 계란말이, 감자탕, 삼겹살, 번데기, 볶음밥, 된장국, 북어국, 갈비탕, 떡국, 갈비, 족발, 갈비찜, 갈치조림, 봉어빵, 오뎅, 돼지국밥, 백화점, 이마트, 면세점, 동대문시장, 한국 사람의 이름 구성, 등산, PC방, 화폐의 종류, 사계절과 날씨, 남산, 강남, 청계천, 이천, 강릉, 용인, 천안, 부여, 진도, 순천, 여수, 대구, 수원, 행정구역, 학기 시작 시기, 대학 입학시험, 기러기야, 택시 종류, 장례식, 추석, 성년의 날, 빼빼로데이, 사주·궁합, 해몽, 주요종교, 경제발전의 원동력/인터넷 속도, 까치, 장독대, 설악산

3.3. 분석 결과 검토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는데 표준모형에서는 더 상위 등급에서 제시된 항목들이 일본에서는 초급 교재에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취 문화와 정보 문화에서는 고급 등급의 문화 항목이 두 가지 이상 출현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본 초급 교재는 비교적 상위 문화 항목도 다양하게 교재에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화 항목이 교재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출현 빈도를 보아도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표준모형에서는 초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1번 내지 2번만 출현하는 경우도 많았다.

교재 분석을 통해 문화 항목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문제점도 확인되었다. 15권 교재 중 한국문화 항목을 언어 학습과 분리하여 부록이나 칼럼 형식으로 제시한 교재는 4권뿐이었다. 나머지 교재들은 대화텍스트나 말하기 연습 문제에서 문화 항목 단어만 제시되거나 매우 간단히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교재③의 대화텍스트에 음식 이름이 나오는 과에서는 어휘 부분에서 여러 요리가 설명되어 있으나 여기서 나오는 간략한 설명만으로 그 요리를 이해하기는 어렵다.¹⁴⁾ 또한 음식 사진도 흑백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또한 교재⑧에서는 대화텍스트에 서울, 부산, 제주도와 같이 한국 지명이 자주 나오는데 그 지역에 대한 안내 및 위치 제시는 없었다. 교재⑤에서도 역시 대화텍스트에 경복궁이 나오는데 경복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교재 분석 결과만을 보면 다양한 항목이 소개되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교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였을 때 과연 교재에 제시된 문화 항목들을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교재를 사용하고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인지도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이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 및 요구조사

2장에서 소개한 와세다대학교 학생의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어 학습동기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유로 든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강현화(2006)에서도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만한 문화 교육이 미흡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습자들이 어떤 한국문화 항목에 대한 요구가 높은지, 실제 어떤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조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3장의 교재분석 결과 일본에서 사용된 교재에는 표준모형의 초급 문화 항목을 어느 정도 포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교재를 대학교 수업에서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볼 것이며, 더불어 각 문화

14) 예를 들어 불고기(전용 냄비를 사용함), 비빔밥(볶음밥), 찌개(냄비요리)와 같이 간략한 설명이 한 줄만 있을 뿐이다.

항목에 대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 항목에 대해 요구조사도 실시하였다.

4.1. 연구 대상 및 방법

인지도 및 요구조사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3개의 대학에서 외국어로 한국어 초급 및 중급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 190명(W대학교:135명, S대학교:35명, M대학교: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¹⁵⁾ 참여자는 모두 한국어 전공자가 아닌 교양으로 학습하는 학생이며 일본어가 모국어인 학습자다. 대상자 성별 및 한국어 수준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대상자 정보

구분		초급	중급	총
성별	남	52	22	74
	여	92	24	116

2016년 12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0일 동안 각 대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일어로 작성하였으며 총 100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¹⁶⁾인지도 및 요구조사의 문화 항목에는 앞서 정리한 교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일본 교재에서 소개된 한국 문화 항목 및 일본 교재에 없었으나 표준모형의 초급에 해당하는 1,2급에서 제시한 항목을 추가하여 포함시켰다. 학습자들에게는 각 문화 항목에 대하여 그 인지도 (1: 전혀 모른다, 2: 들어본 적 있다, 3: 잘 알고 있다)와 학습요구 (1: 전혀 관심 없다 2: 조금 관심 있다 3: 매우 알고 싶다)를 하나씩 선택하게 하였다.

4.2. 결과 분석

인지도 및 요구조사 결과는 보다 자세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표준모형의 교수내용 분류를 기준으로 ‘한국의 예술과 문학’, ‘한국의 역사 및 문화유산’, ‘언어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요리)’, ‘교통’, ‘지리’, ‘교육’, ‘관혼상제’, ‘세시풍속/사회’, ‘공동체 생활/여가 생활/사회생활’, ‘가치관/사고방식/상징물’이라는 12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¹⁷⁾

15) 본 연구에서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인지도 및 요구조사에서는 일본 대학교에서 초급을 마친 중급 학습자의 문화 인식도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자에 포함시켰다.

16) 참고로 인지도 및 요구조사지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부록2에 제시하였다.

1) 한국의 예술과 문학

한국의 예술과 문학에 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판소리’도 그 수치가 1.374로 나타나 다른 분야의 항목과 비교하였을 때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학습 환경이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 한국 전통 공연인 ‘탈춤’이나 ‘부채춤’은 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낮은 인지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공연 형태의 문화 항목은 한국에서는 체험 학습으로 교육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직접 관람할 수 없는 해외의 학습자들에게 사진만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일본 교재에도 다른 교재는 거의 없었고 그 만큼 학습자들의 인지도도 낮게 나타났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요구도에서는 ‘한국의 동요’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것이 주목할 만하다. K-POP 등 최신 가요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요에 대한 요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가사에 초급 어휘가 나오는 동요를 문화 교육에 활용한다면 문화와 어휘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한국의 예술과 문학 인지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른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1	판소리	66.8	127	28.9	55	4.2	8	1,374
2	한국의 동요	67.9	129	30.0	57	2.1	4	1,342
3	탈춤	85.8	163	13.2	25	1.1	2	1,153
4	부채춤	90.5	172	7.4	14	2.1	4	1,116

〈표 9〉 한국의 예술과 문학 요구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관심 없다(1)		조금 관심 있다(2)		매우 알고 싶다(3)		평균
		(%)	(명)	(%)	(명)	(%)	(명)	
1	한국의 동요	32.6	62	51.6	98	15.8	30	1,832
2	탈춤	50.0	95	38.4	73	11.6	22	1,616
3	판소리	48.9	93	41.1	78	10.0	19	1,611
4	부채춤	51.1	97	38.4	73	10.5	20	1,595

17) 표준모형의 교수내용 분류는 부록1 참조.

2) 한국의 역사 및 문화유산

한국의 역사 및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항목은 ‘이순신’이었다. 이순신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과는 상관없이 비교적 많은 일본인들이 인지하는 역사적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복’이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한복도 역시 한국의 전통의상으로 일본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유적지 중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경복궁’이나 ‘종묘’가 아닌 ‘경주 불국사, 석굴암’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경주 불국사, 석굴암’은 특히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은 것이 다른 하위 항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 부분이다. 교재에 나와 혹은 여행을 가서 들어보기는 했으나 실제로 잘 알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은 항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구도를 살펴보면 ‘한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복은 외국에서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비교적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문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습자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교육 항목으로 추가하면 좋을 것이다.

〈표 10〉 한국의 역사 및 문화유산 인지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른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1	이순신	29.5	56	44.2	84	26.3	50	1,968
2	한복	35.3	67	42.6	81	22.1	42	1,868
3	경주 불국사, 석굴암	46.3	88	46.3	88	7.4	14	1,611
4	경복궁	70.0	133	17.4	33	12.6	24	1,426
5	종묘	82.6	157	13.2	25	4.2	8	1,216
6	수원 화성	83.2	158	13.2	25	3.7	7	1,205
7	강강술래	88.9	169	7.9	15	3.2	6	1,142
8	안동 하회마을	92.1	175	5.3	10	2.6	5	1,105

〈표 11〉 한국의 역사 및 문화유산 요구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관심 없다(1)		조금 관심 있다(2)		매우 알고 싶다(3)		평균
		(%)	(명)	(%)	(명)	(%)	(명)	
1	한복	29.5	56	48.9	93	21.6	41	1,921
2	경주 불국사, 석굴암	32.1	61	50.0	95	17.9	34	1,858
3	이순신	33.7	64	49.5	94	16.8	32	1,832

	문화항목(단위)	전혀 관심 없다(1)		조금 관심 있다(2)		매우 알고 싶다(3)		평균
		(%)	(명)	(%)	(명)	(%)	(명)	
4	경복궁	39.5	75	42.6	81	17.9	34	1,784
5	수원 화성	39.5	75	45.8	87	14.7	28	1,753
6	종묘	43.7	83	41.6	79	14.7	28	1,711
7	안동 하회마을	48.4	92	41.1	78	10.5	20	1,621
8	강강술래	51.6	98	37.9	72	10.5	20	1,589

3) 언어생활

언어생활 관련 항목은 인사, 가족과 관련된 항목이 많은데 인사말, 가족 소개 등은 거의 대부분의 초급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항목이다. 그만큼 전체적인 인지도도 다른 분야보다 높게 실현되었다. 특히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가족 호칭’ 같은 경우는 46%의 학습자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포함하면 약 85%가 되었다. 반대로 답답함을 표시하는 몸짓언어에 관해서는 일본 교재에서 소개되지 않은 항목인 만큼 인지도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빈말 표현과 인사 방법 등 인사 관련 항목이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또한 몸짓언어는 인지도는 가장 낮았으나 요구도는 2.1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몸짓언어는 일본 교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항목이었으나 요구도를 보았을 때 교육 항목으로 추가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컴퓨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지도는 낮게 나왔으나 요구도는 높은 편이었다. 이 역시 SNS,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최근 학습자 경향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 항목으로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글 창제 원리’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일본 교재에서 소개되었으나 인지도도 높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요구도도 최하로 나타났다.

〈표 12〉 언어생활 인지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른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1	친족 호칭	14.7	28	38.9	74	46.3	88	2,316
2	사회적 호칭(~씨)	14.7	28	46.3	88	38.9	74	2,242
3	호칭의 확대 현상 ¹⁸⁾	18.9	36	40.5	77	40.5	77	2,216
4	친족에도 존댓말 쓰기	13.7	26	52.1	99	34.2	65	2,205
5	한국의 흔한 성씨	21.1	40	56.3	107	22.6	43	2,016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른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6	빈말표현	26.8	51	48.4	92	24.7	47	1,979
7	존댓말과 반말	29.5	56	47.4	90	23.2	44	1,937
8	한글 창제 원리	33.2	63	44.7	85	22.1	42	1,889
9	고개 숙이고 인사, 악수	28.4	54	56.8	108	14.7	28	1,863
10	PC한글 입력 방법	57.9	110	27.9	53	14.2	27	1,563
11	친가와 외가의 가족호칭	54.2	103	38.9	74	6.8	13	1,526
12	몸짓 언어(답답함 표시)	71.6	136	22.1	42	6.3	12	1,347

〈표 13〉 언어생활 요구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관심 없다(1)		조금 관심 있다(2)		매우 알고 싶다(3)		평균
		(%)	(명)	(%)	(명)	(%)	(명)	
1	빈말 표현	14.2	27	37.9	72	47.9	91	2,337
2	고개 숙이고 인사, 악수	15.8	30	43.2	82	41.1	78	2,253
3	친족에도 존댓말 쓰기	17.9	34	43.7	83	38.4	73	2,205
4	친족 호칭	17.4	33	45.3	86	37.4	71	2,200
5	PC한글 입력 방법	23.2	44	35.8	68	41.1	78	2,179
6	몸짓 언어(답답함 표시)	20.5	39	42.1	80	37.4	71	2,168
7	존댓말과 반말	20.5	39	42.1	80	37.4	71	2,168
8	친족 호칭의 확대 현상	21.1	40	41.6	79	37.4	71	2,163
9	사회적 호칭(~씨)	20.5	39	44.7	85	34.7	66	2,142
10	한국의 흔한 성씨	20.5	39	45.8	87	33.7	64	2,132
11	친가와 외가의 가족호칭	25.3	48	39.5	75	35.3	67	2,100
12	한글 창제 원리	28.4	54	47.9	91	23.7	45	1,953

4) 일상생활

한국 요리를 제외한 일상생활 항목들을 살펴보겠다. ‘그릇 들지 않고 먹기’가 가장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릇을 들고 먹는 것이 올바른 예절로 교육 받아온 일본인들에게는

18) 가족 아닌 선배, 식당 아주머니 등에게 친족 호칭(오빠, 형, 언니, 누나, 이모)등을 사용하는 것.

낮선 문화인만큼 자세히 기재한 교재도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지도도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침잔’에 관해서도 일본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유되는 일인데 한국에서는 결례가 되는 상이한 문화 항목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요구도를 살펴보면 상위 13위 중 11개의 항목이 식사와 음식에 관한 항목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인 학습자들은 의식주 중에서 식사와 관련된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요구도가 약 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상차림’은 인지도는 약 1.4로 매우 낮게 나타난 항목이었다는 것이다. 보통 다른 분야 항목들은 인지도가 높은 항목이 요구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이 분야에서는 모르는 것 즉 인지도가 낮은 항목을 알고자 하는 경향이 보인다. 전체적으로 학습자의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모르는 문화 항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학습자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14〉 일상생활 인지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른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1	그릇 들지 않고 먹기	44.7	85	29.5	56	25.8	49	1,811
2	생일에 미역국 먹기	50.0	95	26.3	50	23.7	45	1,737
3	자기 수저로 직접 먹기 ¹⁹⁾	53.2	101	32.6	62	14.2	27	1,611
4	재래시장	51.6	98	37.9	72	10.5	20	1,589
5	온돌생활	59.5	113	24.2	46	16.3	31	1,568
6	백화점, 대형마트	55.8	106	31.6	60	12.6	24	1,568
7	소리 내지 않고 먹기	58.9	112	32.6	62	8.4	16	1,495
8	어른 먼저 수저 들기	61.6	117	27.9	53	10.5	20	1,489
9	홈쇼핑, 인터넷쇼핑	62.1	118	28.4	54	9.5	18	1,474
10	식사 중 한쪽 무릎 세우고 앉기	65.8	125	22.6	43	11.6	22	1,458
11	계절음식(여름-팔빙수)	72.1	137	10.0	19	17.9	34	1,458
12	한국의 주거형태	64.7	123	25.3	48	10.0	19	1,453
13	봄-벚꽃놀이, 가을-단풍놀이	61.1	116	32.6	62	6.3	12	1,453
14	고개 돌리고 마시기	70.5	134	15.3	29	14.2	27	1,437
15	합격/이사-떡 먹기	67.4	128	25.3	48	7.4	14	1,400
16	상차림(음식 놓는 위치)	65.8	125	29.5	56	4.7	9	1,389
17	한옥	75.8	144	16.8	32	7.4	14	1,316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른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18	식사 중 먼저 자리 뜨지 않기	76.8	146	19.5	37	3.7	7	1,268
19	침잔을 하지 않기	84.2	160	11.1	21	4.7	9	1,205
20	계절음식(복날-삼계탕)	86.3	164	8.9	17	4.7	9	1,184

〈표 15〉 일상생활 요구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관심 없다(1)		조금 관심 있다(2)		매우 알고 싶다(3)		평균
		(%)	(명)	(%)	(명)	(%)	(명)	
1	상차림(음식 놓는 위치)	16.3	31	41.6	79	42.1	80	2,258
2	소리 내지 않고 먹기	14.7	28	47.9	91	37.4	71	2,226
3	그릇 들지 않고 먹기	14.7	28	48.4	92	36.8	70	2,221
4	식사 중 먼저 자리 뜨지 않기	16.8	32	46.3	88	36.8	70	2,200
5	어른 먼저 수저 들기	15.3	29	51.1	97	33.7	64	2,184
6	생일에 미역국 먹기	18.9	36	43.7	83	37.4	71	2,184
7	합격/이사떡 먹기	19.5	37	43.7	83	36.8	70	2,174
8	재래시장	21.6	41	39.5	75	38.9	74	2,174
9	백화점, 대형마트	22.6	43	37.4	71	40.0	76	2,174
10	식사 중 한쪽 무릎 세우고 앉기	18.9	36	45.3	86	35.8	68	2,168
11	자기 수저로 직접 먹기	20.5	39	45.3	86	34.2	65	2,137
12	고개 돌리고 마시기	22.1	42	42.1	80	35.8	68	2,137
13	침잔을 하지 않기	22.6	43	41.6	79	35.8	68	2,132
14	홈쇼핑, 인터넷쇼핑	23.2	44	43.7	83	33.2	63	2,100
15	한국의 주거형태	23.7	45	44.7	85	31.6	60	2,079
16	봄-벚꽃놀이, 가을-단풍놀이	24.7	47	45.8	87	29.5	56	2,047
17	계절음식(여름-팥빙수)	27.9	53	42.6	81	29.5	56	2,016
18	온돌생활	27.9	53	45.3	86	26.8	51	1,989
19	계절음식(복날-삼계탕)	29.5	56	43.7	83	26.8	51	1,974
20	한옥	27.9	53	47.9	91	24.2	46	1,963

19) 요리를 별도의 국자 등을 사용해서 덜어 먹지 않고 자기의 수저, 젓가락을 사용해서 직접 먹는 것.

5) 일상생활(요리)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요리에 관한 항목들을 별도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2장에서 소개한 수강생 대상 기본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요리는 한국어 학습 동기가 될 만큼 관심도가 높은 항목이다. 그 중에서도 어떤 음식들이 인지도가 높은지 이번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대표적 음식인 ‘비빔밥’은 73%, ‘냉면’은 66%, ‘김치찌개’는 62%의 학습자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찜닭’, ‘낙지볶음’, ‘곰탕’, ‘칼국수’, ‘순대’와 같은 음식들은 다른 요리에 비해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음식은 다른 분야에 비해 인지도와 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항목별 인지도와 요구도 순위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이미 알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재 분석 결과 높은 빈도로 소개된 ‘비빔밥’, ‘냉면’, ‘김치찌개’ 등이 인지도도 높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요리에 관해서는 사진이나 그림 등 시각 자료로 보여주고 교사가 설명을 더 해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요구도도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교육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적절한 문화 교육을 통해 요리에 관한 배경지식이 생기면 실제로 한국 식당에 가게 되어도 충분히 요리를 이해하고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6〉 일상생활(요리) 인지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른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1	비빔밥	4.7	9	22.6	43	72.6	138	2.679
2	냉면	7.9	15	26.3	50	65.8	125	2.579
3	김치찌개	7.9	15	30.5	58	61.6	117	2.537
4	불고기	8.9	17	30.0	57	61.1	116	2.521
5	떡볶이	9.5	18	29.5	56	61.1	116	2.516
6	순두부찌개	13.2	25	27.4	52	59.5	113	2.463
7	삼계탕	10.5	20	32.6	62	56.8	108	2.463
8	잡채	14.2	27	31.6	60	54.2	103	2.400
9	짜장면	13.7	26	34.2	65	52.1	99	2.384
10	팔빙수	36.3	69	20.5	39	43.2	82	2.068
11	김밥	37.9	72	22.6	43	39.5	75	2.016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른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12	파전	42.6	81	20.5	39	36.8	70	1,942
13	한정식	36.8	70	35.8	68	27.4	52	1,905
14	두부김치	41.6	79	31.1	59	27.4	52	1,858
15	된장찌개	41.6	79	32.1	61	26.3	50	1,847
16	부대찌개	45.3	86	30.0	57	24.7	47	1,795
17	순대	62.1	118	20.5	39	17.4	33	1,553
18	칼국수	60.5	115	24.2	46	15.3	29	1,547
19	곰탕	64.7	123	24.7	47	10.5	20	1,458
20	낙지볶음	72.6	138	21.1	40	6.3	12	1,337
21	찜닭	74.7	142	20.5	39	4.7	9	1,300

〈표 17〉 일상생활(요리) 요구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관심 없다(1)		조금 관심 있다(2)		매우 알고 싶다(3)		평균
		(%)	(명)	(%)	(명)	(%)	(명)	
1	비빔밥	12.6	24	35.8	68	51.6	98	2,389
2	냉면	13.7	26	35.8	68	50.5	96	2,368
3	삼계탕	15.3	29	34.2	65	50.5	96	2,353
4	불고기	14.2	27	36.8	70	48.9	93	2,347
5	짜장면	14.7	28	35.8	68	49.5	94	2,347
6	순두부찌개	15.3	29	34.7	66	50.0	95	2,347
7	김밥	15.8	30	35.8	68	48.4	92	2,326
8	잡채	16.3	31	34.7	66	48.9	93	2,326
9	떡볶이	15.8	30	35.8	68	48.4	92	2,326
10	부대찌개	16.8	32	33.7	64	49.5	94	2,326
11	팔빙수	15.3	29	36.8	70	47.9	91	2,326
12	김치찌개	15.3	29	37.9	72	46.8	89	2,316
13	곰탕	17.4	33	33.7	64	48.9	93	2,316
14	찜닭	16.8	32	34.7	66	48.4	92	2,316
15	칼국수	16.8	32	35.3	67	47.9	91	2,311

	문화항목(단위)	전혀 관심 없다(1)		조금 관심 있다(2)		매우 알고 싶다(3)		평균
		(%)	(명)	(%)	(명)	(%)	(명)	
16	한정식	18.4	35	33.2	63	48.4	92	2,300
17	낙지볶음	17.9	34	34.2	65	47.9	91	2,300
18	된장찌개	19.5	37	33.2	63	47.4	90	2,279
19	두부김치	19.5	37	33.2	63	47.4	90	2,279
20	파전	18.4	35	35.8	68	45.8	87	2,274
21	순대	19.5	37	33.7	64	46.8	89	2,274

6) 교통

교통과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지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다. 요구는 많으나 실제로 지식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얇은 사람이 서있는 사람의 가방 받아주기’는 인지도는 1.4로 낮게 나타났으나 약 80%가 매우 알고 싶다, 혹은 조금 알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일본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보인 것이라 추측된다. 교통체계와 관련해서는 ‘교통수단’과 ‘지하철노선’ 등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항목 관련 인지도 및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택시’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흔히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아니므로 한국 택시 종류에 관해서는 낮은 요구도를 보였을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택시 이용에 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택시 이용 상황이나 요금 등에 대하여 교육 항목에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표 18〉 교통 인지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른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1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44.2	84	40.0	76	15.8	30	1,716
2	교통 수단	52.6	100	29.5	56	17.9	34	1,653
3	지하철 노선	58.9	112	24.7	47	16.3	31	1,574
4	노약자석에 앉지 않기	67.4	128	22.6	43	10.0	19	1,426
5	얇은 사람이 서있는 사람의 가방 받아주기	66.8	127	24.2	46	8.9	17	1,421
6	KTX	70.5	134	18.4	35	11.1	21	1,405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른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7	버스 이용 방법(환승, 할인)	76.8	146	16.3	31	6.8	13	1,300
8	택시(일반택시,모범택시)	77.9	148	15.3	29	6.8	13	1,289
9	버스 종류(노선,고속,공항)	83.2	158	12.1	23	4.7	9	1,216
10	버스 전용차선	86.3	164	10.5	20	3.2	6	1,168

〈표 19〉 교통 요구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관심 없다(1)		조금 관심 있다(2)		매우 알고 싶다(3)		평균
		(%)	(명)	(%)	(명)	(%)	(명)	
1	앞은 사람이 서있는 사람의 가방 받아주기	20.5	39	46.8	89	32.6	62	2,121
2	교통수단	24.2	46	40.0	76	35.8	68	2,116
3	지하철 노선	24.2	46	40.5	77	35.3	67	2,111
4	버스 이용방법(환승, 할인)	27.4	52	37.4	71	35.3	67	2,079
5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24.2	46	47.9	91	27.9	53	2,037
6	KTX	30.5	58	36.8	70	32.6	62	2,021
7	노약자석에 앉지 않기	27.4	52	45.3	86	27.4	52	2,000
8	택시(일반택시,모범택시)	28.4	54	43.7	83	27.9	53	1,995
9	버스 종류(노선,고속,공항)	31.6	60	38.4	73	30.0	57	1,984
10	버스 전용차선	34.2	65	40.0	76	25.8	49	1,916

7) 지리

지리와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교재에서도 많이 소개된 ‘서울지명’, ‘대표지역’이 인지도 및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인지도 결과를 보면 서울지명, 대표지역 둘 다 100명이상 즉 50%를 넘는 사람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지명은 알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해 설명할 정도로 잘 알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교재에서 대화 텍스트 및 연습 문제에 지명이 이용되지만 그것에 대한 부가설명이 거의 없고 단지 어휘로만 지명을 제시한 교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0〉 지리 인지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른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1	서울지명	25.8	49	53.2	101	21.1	40	1,953
2	대표지역	28.4	54	52.6	100	18.9	36	1,905
3	사계절과 날씨	59.5	113	32.1	61	8.4	16	1,489
4	한반도 지리	72.1	137	24.2	46	3.7	7	1,316
5	행정구역	81.1	154	16.8	32	2.1	4	1,211

〈표 21〉 지리 요구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관심 없다(1)		조금 관심 있다(2)		매우 알고 싶다(3)		평균
		(%)	(명)	(%)	(명)	(%)	(명)	
1	서울지명	18.4	35	40.0	76	41.6	79	2,232
2	대표지역	21.6	41	41.1	78	37.4	71	2,158
3	사계절과 날씨	23.2	44	43.7	83	33.2	63	2,100
4	한반도 지리	35.3	67	39.5	75	25.3	48	1,900
5	행정구역	42.1	80	31.6	60	26.3	50	1,842

8) 교육

교육에 관해서는 ‘대학 입학시험’의 인지도 및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러기아빠’는 표준모형에서는 고급인 5급에 해당되는 문화항목이며 일본 초급 교재에서도 한 권만 다른 항목이었기 때문에 인지도는 약 1.4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요구도는 2.0을 넘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22〉 교육 인지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른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1	대학 입학시험	36.8	70	42.6	81	20.5	39	1,837
2	6-3-3-4 학제	54.2	103	35.3	67	10.5	20	1,563
3	학기 시작 시기	65.3	124	25.3	48	9.5	18	1,442
4	조기교육, 기러기아빠	69.5	132	23.2	44	7.4	14	1,379

〈표 23〉 교육 요구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관심 없다(1)		조금 관심 있다(2)		매우 알고 싶다(3)		평균
		(%)	(명)	(%)	(명)	(%)	(명)	
1	대학 입학시험	18.9	36	43.2	82	37.9	72	2,189
2	조기교육, 기러기아빠	27.9	53	37.9	72	34.2	65	2,063
3	6-3-3-4 학제	26.3	50	44.2	84	29.5	56	2,032
4	학기 시작 시기	28.9	55	42.1	80	28.9	55	2,000

9) 관혼상제

관혼상제와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지도 평균이 낮은 편이지만 요구도는 모든 항목에서 2.0을 넘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결혼문화’가 인지도와 요구도 모두 가장 높았다. 일본 교재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제시된 교재가 적어 인지도는 낮지만 전체적으로 학습자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인 것으로 보인다.

〈표 24〉 관혼상제 인지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른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1	결혼문화	67.9	129	26.8	51	5.3	10	1,374
2	돌잔치	75.3	143	17.4	33	7.4	14	1,321
3	장례식, 제사 지내는 방법	82.6	157	14.2	27	3.2	6	1,205
4	성인식	85.3	162	11.6	22	3.2	6	1,179

〈표 25〉 관혼상제 요구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관심 없다(1)		조금 관심 있다(2)		매우 알고 싶다(3)		평균
		(%)	(명)	(%)	(명)	(%)	(명)	
1	결혼문화	25.3	48	39.5	75	35.3	67	2,100
2	돌잔치	27.9	53	42.1	80	30.0	57	2,021
3	장례식, 제사 지내는 방법	27.9	53	43.2	82	28.9	55	2,011
4	성인식	27.9	53	43.2	82	28.9	55	2,011

10) 세시풍속/사회

명절과 공휴일, 기념일과 같은 항목이 해당되는데 ‘설’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항목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7%의 학습자가 ‘들어본 적이 있다’를 선택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에 불과하였다. 역시 막연하게 알고는 있으나 잘 이해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지도가 2위로 나타난 ‘빼빼로데이’같은 경우는 67%가 ‘전혀 모른다’를, 22%가 ‘잘 알고 있다’를 선택하여, 극단적인 결과를 보였다. 또한 빼빼로데이는 요구도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약76%의 학습자가 조금 관심이 있거나 매우 알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표 26〉 세시풍속/사회 인지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른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1	설(떡국, 세뱃돈)	43.7	83	47.4	90	8.9	17	1,653
2	빼빼로데이	66.8	127	11.1	21	22.1	42	1,553
3	추석(차례, 송편)	61.6	117	31.1	59	7.4	14	1,458
4	블랙데이	73.2	139	13.7	26	13.2	25	1,400
5	공휴일	72.6	138	25.3	48	2.1	4	1,295

〈표 27〉 세시풍속/사회 요구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관심 없다(1)		조금 관심 있다(2)		매우 알고 싶다(3)		평균
		(%)	(명)	(%)	(명)	(%)	(명)	
1	빼빼로데이	23.7	45	37.9	72	38.4	73	2,147
2	블랙데이	22.6	43	41.6	79	35.8	68	2,132
3	설(떡국, 세뱃돈)	26.3	50	41.1	78	32.6	62	2,063
4	공휴일	24.7	47	44.2	84	31.1	59	2,063
5	추석(차례, 송편)	26.8	51	42.6	81	30.5	58	2,037

11) 공동체 생활/여가 생활/사회생활

조사 대상자가 대학생인 만큼, 미팅, 소개팅 항목의 인지도와 요구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일본 대학생에도 미팅과 비슷한 문화가 존재하지만 소개팅은 흔치 않은 문화다. 일본

대학생들도 이러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외국인등록증 등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공장소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표 28〉 공동체 생활/여가 생활/사회생활 인지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른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1	미팅, 소개팅	63.7	121	21.1	40	15.3	29	1,516
2	방 문화 (PC방, 노래방, 찜질방)	68.9	131	20.0	38	11.1	21	1,421
3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외국인등록증	81.6	155	14.7	28	3.7	7	1,221

〈표 29〉 공동체 생활/여가 생활/사회생활 요구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관심 없다(1)		조금 관심 있다(2)		매우 알고 싶다(3)		평균
		(%)	(명)	(%)	(명)	(%)	(명)	
1	미팅, 소개팅	30.5	58	38.9	74	30.5	58	2,000
2	방 문화 (PC방, 노래방, 찜질방)	33.7	64	40.5	77	25.8	49	1,921
3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외국인등록증	32.1	61	44.2	84	23.7	45	1,916

12) 가치관/사고방식/상징물

‘남성의 군복무 의무’는 군복무의 의무가 없는 일본 대학생, 특히 남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 분야에서 유일하게 인지도가 2.0을 넘었다. 요구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한국 연예인이 군대에 가는 사실이 자주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도 인지도에 반영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띠’에 관해서는 7권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항목이었으나 인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요구도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30〉 가치관/사고방식/상징물 인지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모르다(1)		들어본 적 있다(2)		잘 알고 있다(3)		평균
		(%)	(명)	(%)	(명)	(%)	(명)	
1	남성의 군복무 의무	21.1	40	52.1	99	26.8	51	2,058
2	국기, 국가	41.6	79	48.4	92	10.0	19	1,684
3	주요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57.9	110	31.1	59	11.1	21	1,532
4	띠	86.3	164	11.1	21	2.6	5	1,163

〈표 31〉 가치관/사고방식/상징물 요구도

	문화항목(단위)	전혀 관심 없다(1)		조금 관심 있다(2)		매우 알고 싶다(3)		평균
		(%)	(명)	(%)	(명)	(%)	(명)	
1	남성의 군복무 의무	19.5	37	41.6	79	38.9	74	2,195
2	국기, 국가	25.3	48	48.9	93	25.8	49	2,005
3	주요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31.6	60	42.1	80	26.3	50	1,947
4	띠	32.1	61	41.6	79	26.3	50	1,942

마지막으로 인지도 및 요구도의 수치가 높았던 상위 30개 항목을 정리하였다. 인지도 상위 30개 항목을 살펴보면 15개가 한국 음식에 관한 항목이었다. 언어생활과 관련한 항목도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친족과 관련된 내용이 보다 상위에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항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표준모형의 중, 고급의 문화 항목들이 몇 가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인지도 15위의 ‘남성의 군복무의 의무’는 표준모형에서는 6급, 인지도 19위의 이순신 등 유명인물은 표준모형에서는 5급, 30위에 든 ‘대학입학시험’은 표준모형 4급에 제시된 항목이다. 그러나 초급 및 중급 학습자 대상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이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다.

요구도는 22위까지 ‘빈말 표현’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 요리가 차지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설정한 요리 항목은 총 21개였으며 즉 요리에 관한 모든 항목이 상위 30개안에 포함되어 한국 음식에 대한 학습자 요구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생활 관련 항목들은 인지도 상위 30위 안에는 하나도 들지 못하였으나 요구도에서는 ‘상차림’, ‘소리 내지 않고 먹기’, ‘그릇 들지 않고 먹기’, ‘식사 중 먼저 자리 뜨지 않기’라는 4개 항목이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상차림’은 교재에서 소개되지 않은 항목이었으며,

‘소리 내지 않고 먹기’, ‘그릇 들지 않고 먹기’와 같은 항목은 일본과 차이를 보이는 식사에절이 었다. 이와 같이 상이한 문화 항목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은 추후 교육할 문화항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문화 분류 별로 분석하였을 때 인지도는 상위 30개 중 각각 항목 수는 성취문화가 2개, 행동문화가 8개, 정보문화가 20개였다. 요구도를 보면 성취문화는 없었으며, 행동문화가 8개, 정보문화가 22개였다. 문화 분류 별로 보았을 때는 정보문화에 관한 항목의 인지도 및 요구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행동문화, 성취문화가 뒤를 이었다.

〈표 32〉 인지도 및 요구 상위 항목

	문화항목	인지도 평균		문화항목	요구도 평균
1	비빔밥	2.679	1	비빔밥	2.389
2	냉면	2.579	2	냉면	2.368
3	김치찌개	2.537	3	삼계탕	2.353
4	불고기	2.521	4	불고기	2.347
5	떡볶이	2.516	5	짜장면	2.347
6	순두부찌개	2.463	6	순두부찌개	2.347
7	삼계탕	2.463	7	빈말표현	2.337
8	잡채	2.400	8	김밥	2.326
9	짜장면	2.384	9	잡채	2.326
10	친족호칭	2.316	10	떡볶이	2.326
11	사회적 호칭(~씨)	2.242	11	부대찌개	2.326
12	친족 호칭의 확대 현상	2.216	12	팔빙수	2.326
13	친족에도 존댓말 쓰기	2.205	13	김치찌개	2.316
14	팔빙수	2.068	14	곰탕	2.316
15	남성의 군복무의 의무	2.058	15	찜닭	2.316
16	한국의 흔한 성씨	2.016	16	칼국수	2.311
17	김밥	2.016	17	한정식	2.300
18	빈말표현	1.979	18	낙지볶음	2.300
19	이순신	1.968	19	된장찌개	2.279
20	서울지명	1.953	20	두부김치	2.279
21	파전	1.942	21	파전	2.274
22	존댓말과 반말	1.937	22	순대	2.274
23	한정식	1.905	23	상차림	2.258

	문화항목	인지도 평균		문화항목	요구도 평균
24	대표지역	1.905	24	고개 숙이고 인사, 악수하기	2.253
25	한글 창제 원리	1.889	25	서울지명	2.232
26	한복	1.868	26	소리 내지 않고 먹기	2.226
27	고개 숙이고 인사, 악수하기	1.863	27	그릇 들지 않고 먹기	2.221
28	두부김치	1.858	28	친족에도 존댓말 쓰기	2.205
29	된장찌개	1.847	29	친족호칭	2.200
30	대학 입학시험	1.837	30	식사 중 먼저 자리 뜨지 않기	2.200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일본 대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어떠한 문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일본 대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도를 살펴보았다. 교재분석 결과를 보면 비교적 다양한 한국문화를 교재에 포함하고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교재에 실려 있는 항목이더라도 ‘전혀 모른다’ 혹은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하는 학습자가 많아 적절하게 그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학습자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추후 일본 대학교에서의 한국문화 교육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재분석 결과 표준모형에서는 초급보다 더 상위 등급에 제시된 ‘공휴일’, ‘띠’와 같은 항목이 일본 대학교에서 사용된 초급 교재에는 높은 빈도로 출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 관해서는 인지도 및 요구도가 둘 다 낮게 나타났으며 교재에 실려 있다고 해서 학습자들에 인식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일본 대학교에서 교육할 문화항목을 선정할 때는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모형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 교재의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요구도도 30위 내에는 들지는 못하였으나 2.179로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최근 학습자 경향을 고려하여도 교육항목에 적극적으로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요구조사 결과를 보면 식사예절, 요리 종류와 관련된 항목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식사예절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기술한 교재는 많지 않았다. 또한 요리에 관해서도 ‘비빔밥’, ‘김밥’, ‘떡볶이’, ‘냉면’과 같은 흔한 요리는 많이 출현하였으나 다양한 요리를 모아서 소개한 교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부분은 교육항목을 선정할 때 꼭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지도 및 요구조사 결과 문화 분류 중 정보문화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도 문화교육항목

선정 시 고려할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대학교에서는 한국어를 교양으로 선택하는 학습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성취 문화와 같은 학문적인 내용보다 실제로 여행을 가거나 한국인 친구와 교제할 때 필요한 행동 문화와 정보 문화와 같은 항목을 우선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일본 대학교에서의 한국문화 교육 항목 및 그 배열 순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문화 항목이 제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사가 적절한 추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지도 조사를 보았을 때 각 항목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을 한 학습자가 많았다. 이는 교재에 문화 관련 항목이 나와 들어보긴 하였으나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를 접하기는 하였으나 이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교재에 문화항목이 제시되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에도 배우지 못하여 지나가 버린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사가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여 짧은 시간이라도 그것에 대해 해설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앞으로 대학교 한국어 강좌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교육 항목을 포함한 새로운 교재를 개발한다면, 상위 등급 문화항목을 제시하는 것보다 초급 단계에서 알아야 할 문화 항목에 대해 좀 더 집중하여 자세히 설명을 부여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번 요구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요구가 높은 항목을 적극적으로 추가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흥미를 계속 자극시켜줘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일본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수업시간은 한국문화와 관련해서 교사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적이며 문화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교재 총 15권 중 문화항목을 언어 학습과 분리하여 항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교재는 4권뿐이었다. 가급적이면 중요한 문화는 교재에 어느 정도 해설을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교사가 추가 설명을 할 정도로 하면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재 분석 결과 대화텍스트에 포함된 문화항목이 많지 않았으며 대화텍스트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문화를 칼럼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재도 많았다. 행동문화와 같은 항목들은 특히 대화텍스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며, 교재의 대화텍스트는 가급적으로 문화와 연관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대화텍스트에 나온 문화항목과 연관성이 있는 문화 항목을 칼럼에 넣는 것도 효율적인 문화교육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의 교재 분석 결과 및 문화 항목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조사 결과가 향후 일본 대학교에서의 한국문화 교육 방안, 문화항목 선정 등 여러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 강승혜, 김성희, 박성태, 임형재, 최주열, 황인교. 2010. 한국문화교육론. 형설출판사.
- 강승혜. 2012. 한국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 주제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9, 1-38.
- 강현화. 2006.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조사 -문화교재 개발을 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1, 99-128.
- 강현화. 2011. 한국어 확산 문화 프로그램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강현화 · 홍혜란. 2011. 한국 문화 교육 항목 선정에 관한 기초 연구 -선행연구, 교재, 기관 현황 조사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1-35.
- 권성미. 2013. 한국어 교재 대화 텍스트의 문화 항목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10(1), 1-24.
- 김정숙. 2010.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21(4), 77-98.
- 김정숙. 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10, 317-326.
- 김중섭 외. 2010.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 2011.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개발 2단계(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 박영순. 1989.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 : 한국어의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1), 43-59.
- 오기노 신사쿠. 2015a. 일본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최근 동향 분석 -2008~2014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6(1), 155-194.
- 오기노 신사쿠. 2015b. 일본 대학 내 교양으로서의 한국어교육 발전 방향 연구 -국립 시즈오카대학의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66-77.
- 조항록. 2005.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어 교육 16(2), 279-305.
- 조항록. 2015. 한국어 교육 정책과 문화 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교육 26(4), 389-415.
- 타니자키 미즈코. 2012. 일본 대학교 한국어 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제2외국어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30, 209-230.

● 투고일: 2017. 1.20. ● 심사일: 2017. 1.31. ● 게재확정일: 2017. 2.13.

〈부록1〉 국제통용한국어표준모형의 1, 2급 문화 교육 항목의 목록

(1) 1급

유형	교수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생활	인사	· 고개 숙이고 인사하기 · 악수하기 · 빈말표현(어디 가세요?, 밥 먹었어요?)
			이름과 호칭	· 친족호칭(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누나, 언니, 형, 오빠, 남동생, 여동생) · 사회적 호칭(OO씨, 선후배 호칭)
		일상생활	식생활	· 상차림(음식을 놓는 위치)
	한국사회	교통	교통수단	·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정보	한국인의 생활	일상생활	식생활	· 한국 사람이 자주 먹는 음식(밥, 김치, 찌개류, 국류 등) · 식기의 종류(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요도 및 사용법(숟가락은 밥과 국을 먹을 때 사용, 젓가락은 빈찬을 먹을 때 사용)
			언어생활	한글과 한국어
			이름과 호칭	· 한국 사람의 이름 구성(성과 이름)
	한국 사회	경제	경제제도	· 화폐의 종류-지폐(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만원, 수표), 동전(오백 원, 백 원, 오십 원, 십 원)
		지리	한국의 지리/지형	· 사계절과 날씨

(2) 2급

유형	교수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문화재	· 유적지(송례무늬 경복궁, 불국사, 석굴암)
			무형문화재	· 한복, 강강술래
			세계문화유산	·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 유적 지구,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주세 화산섬과 용암 동굴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이름과 호칭	· 한국의 흔한 성씨, 별명 · 호칭의 확대현상(가족 아닌 사람에게 가족호칭을 사용하는 것: 언니, 오빠, 이모 등)

유 형	교수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한글과 한국어	· 언어예절(존댓말과 반말)	
			몸짓 언어	· 비언어적 행위(사람을 부를 때의 손동작, 대답할 때 가슴을 치는 동작 등)	
		일상 생활	식생활	·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생일-미역국, 합격/이사떡, 결혼-잔치국수) · 식사예절(어른 먼저 수저 들기, 먼저 자리 뜨시 않기, 식사할 때 소리 내지 않고 먹기) · 음주예절(고개 돌리고 마시기, 술 권하기, 술 따르기)	
			계절활동	· 봄-벚꽃놀이, 가을-단풍놀이	
		한국사회	교통	교통수단	· 교통수단 이용하기(버스 타는 곳, 버сий용 시 요금 지불 방법과 할인)
				교통체계	· 교통예절(노약자석에 앉지 않기,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앉은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의 가방 받아주기)
		지리	한국의 지리와 지형	· 계절에 따른 날씨	
	정 보	한국인의 생활	일상 생활	의생활	· 전통의상(한복, 고무신, 짚신)
				주생활	· 한국의 주거형태(한옥, 단독주택, 아파트, 원룸, 기숙사 등) · 전월세, 하숙/자취 · 온돌생활 좌식생활
				식생활	· 계절음식(삼계탕, 팔빙수, 냉면, 팔죽)
경제활동				·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야시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공동체 생활	가정생활	· 공공기관이용(은행, 우체국, 동사무소 등) · 경조사(돌, 환갑 등)	
한국사회		교육	교육제도	· 6-3-3-4 학제, 학기 시작 시기, 정규교육과정의 진학 나이, 의무교육제도	
		교통	교통체계	· 버스 종류, 버스 전용차선, 지하철노선 · 환승, 교통카드	
		관혼 상제	관례/혼례	· 성인식, 결혼문화(상견례, 결혼식, 결혼준비, 축의금 등), 결혼정보회사 등	
			장례/제례	· 장례식, 제사 지내는 방법 등	
		세시 풍속	명절	· 설(세뱃돈, 설빔, 차례, 성묘, 떡국, 만두) · 추석(달맞이, 차례, 성묘, 송편)	
외국인의 한국생활	사회 생활	공공기관 이용	·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외국인등록증 등		

〈부록2〉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 및 요구 조사(일부 발췌)

모국어 _____

성별 남 / 여

대학교 _____

한국어 수준 초급 / 중급

◆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학습요구에 대하여 해당하는 것에 표시해 주세요.

<p>▶ 인지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모른다 2. 들어본 적 있다 3. 잘 알고 있다 	<p>▶ 요구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관심 없다 2. 조금 관심 있다 3. 매우 알고 싶다
---	--

문화 항목	인지도			요구도		
판소리	1	2	3	1	2	3
탈춤	1	2	3	1	2	3
부채춤	1	2	3	1	2	3
강강술래	1	2	3	1	2	3
한복	1	2	3	1	2	3
경복궁	1	2	3	1	2	3
종묘	1	2	3	1	2	3
경주,불국사, 석굴암	1	2	3	1	2	3
수원 화성	1	2	3	1	2	3
안동하회마을	1	2	3	1	2	3
이순신	1	2	3	1	2	3
한글 창제원리	1	2	3	1	2	3
한국 동요	1	2	3	1	2	3
고개 숙이고 인사, 악수하기	1	2	3	1	2	3
빈말 표현(밥 먹었어요?식사하셨어요?)	1	2	3	1	2	3
몸짓언어(답답함 표시)	1	2	3	1	2	3
친족 호칭	1	2	3	1	2	3

| Abstract |

Basic study for Korean language culture education at Japanese universities

- Based on analysis of textbooks and Japanese learners' recognition and request investigation regarding Korean culture

Kishi Kanako (Waseda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basic data for selecting Korean culture education aspects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s of the Japanese university. In this regards, we analyzed the Korean textbooks and examined the cultural aspects included. In addition, it was sought to clarify the recognition and the requirements of Japanese learners of Korean culture through the questionnaire. The textbooks which shall be analyzed consisted of 15 integrated textbooks mainly used at the Japanese universities. The cultural aspects collected from these textbook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culture aspects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Korean language education standard model developed in Korea. As a result, it showed that there were many references to the culture that ranked higher than the grade. On the contrary, there were some aspects that were not presented in the textbook although they were basic elementary culture aspect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and requirements of Japanese learners regarding Korean culture, a survey was executed for 190 learners participating in Korean lectures at Japanese universiti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aspects with low awareness even though they were presented in many elementary level textbooks. Also, it was able to examine

the cultural aspects preferred by Japanese learners through of the requirement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suggest that it will be significant basic data for the selection of suitable cultural aspects and teaching method of Korean culture for Japanese learners universities in future.

〈Key words〉 Korean cultur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Japanese learners, Textbook analysis, Request investigation